

How to HEAR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듣는 방법

데이빗리 목사

하나님의 음성듣는 방법

이다윗 목사 지음

C O N T E N T S

제 1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6
제 2과	영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20
제 3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50
제 4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준비 조건	63
제 5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125
제 6과	영의 골방을 찾으라	147
제 7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160
제 8과	예수님의 기도생활	191

1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부르짖는 것과 부르는 것의 차이

하 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구 중에 '부르짖음'에 대한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으로써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을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관찰과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קָרָא)입니다. 윗 구절에서 <부르짖다>란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큰 소리를 내어야만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 보면 '부르짖다'는 단어의 뜻이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보다는 단순히 '부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을 불러서 소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람과 뭔가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여기에 사용된 '부르시며'라는 단어가 바로 카라(**קָרָ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큰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부르짖으며’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칠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서 모세를 부르시니라”(출 24:16)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찾으시며 그를 부르신 것처럼 모세에게

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 3:4).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혼내 주기 위해서 “야, 이놈. 아담아! 너 이놈.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하시며 아담을 찾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은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역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수많은 자신의 기도문에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
하시리로다”(시 55:16)

하지만 시편의 기자가 그토록 많은 부분에서 '부르짖으라'를 강조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사용했던 '부르짖다'는 단어 역시 단순히 '부르다'를 뜻하는 카라(קָרָא)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편의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 번역에 가까운 것일 겁니다. 자꾸만 ‘부르다’는 뜻의 카라(קָרָא)를 ‘부르짖다’는 표현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형성을 돕는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앞서 설명한 카라(קָרָא)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곳에서는 ‘부르짖다’나 ‘부르다’란 말 대신에 오히려 ‘기도할 때’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

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 4:7)

왜 ‘카라’를 ‘기도할 때’라고 번역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이 ‘카라’란 단어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될 때 가장 멋진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란 번역이나 ‘부르다’란 번역보다 훨씬 그 의미가 선명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엘리 선지자의 음성인줄 착각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삼상 3:6)

윗 구절에서 ‘부르다’란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모두 카라(**קָרָ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부르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번의 ‘부르다’의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모두가 관계적인 상황입니다. 처음의 ‘부르다’가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였고, 나머지 두 개는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르다’의 뜻을 가진

카라(kara)는 관계형성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목이 터지라고 외치듯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길거리에서 “김사장님!” 하고 외쳐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 볼 것입니다. 모두가 ‘김사장’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김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김사장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여학생 학교에서 ‘철수’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들은 기도원에서도 찾아 보고, 교회에서도 찾아보고, 행사에서도 찾아보고, 성경에서도 찾아보고,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에서도 찾아보면서 안간 힘을 다 기울려 하나님 계신 곳을 찾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단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때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날 만한 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세상의 때도 아닌 바로 ‘당신의 때’를 말합니다. 이 구절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며, 저 높은 곳의 하나님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먼 곳이라서 감히 대화를 나눌 생각조차 못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좀 더 솔직해 봅시다. 당신은 오늘 당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 말은 “당신이 준비되었습니까?”입니다. 어찌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당신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찌면 당신은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심장마비로 사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 되었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당신은 뭔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바로 '정결'과 '거룩'입니다. 당신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 형상을 입으신 모습으로 존재하시지만 사도요한이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적이

거나 혼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육적이지 아니하시고 혼적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이지 않으시고 혼적이지 않으신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싫어하시고 혼적인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계시며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시고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결하고 거룩하다면 담대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당신과 대화를 나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간혹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의 하나님 사모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사모함은 저들의 사모함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남편은 아내

를 그저 빨래나 하고 밥이나 지어주는 존재로밖에는 생각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아내도 남편을 그저 돈이나 벌여주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모함이 없는 부부는 물 없는 사막처럼 건조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언제나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방이 있으니까 그곳에 누워 자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문을 열어 먹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가정의 의미도 없고 그 이상의 가정의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모함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시 42:1)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 가사이지만 노래를 잘 아는 것만큼 사모함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슴이 아니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슬프고 괴로운 삶인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르는 것’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사모함은 그 어떠한 능력이
나 은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며 큰 능력입니다. 사모함을 갖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함이 생기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함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사역자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군가
예언을 해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
는 것을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타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
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이 행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
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쟁이
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
함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성훈련을 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택복권 당첨 번
호를 하나님께 여쭙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번호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잃어버린
신발을 찾기 위해 “성령님, 신발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통하게 잘 맞았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도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까지 안

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츰 내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코 나 자신이나 그릇된 것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모함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속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관상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에게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삼상 12:23).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처음엔 짝사랑처럼 관계가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에 애절함과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쭙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은 어떤 벡타이를 매고 갈까요? 이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것이 좋을까요?”라고 여쭙는다고 합니다. 나는 훈련자들에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쭙보라고 권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무시합니다. 물론 그 말이 뭐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하는 의심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는 분들은 신통스럽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며 따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사모함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들리는 음성이라는 사실ைய요...

2과



영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의 참 뜻?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갖는 애매모호함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인해 하나님은 단순한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며 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표현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혼적인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육적이거나 혼적일 때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예

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만 영적으로 예배하고 다른 것은 육적이나 혼적으로 드러져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육적인 기도나 혼적인 기도는 영적인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와 혼적인 기도에는 차이가 있듯이 혼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영적인 헌신을 드러야 합니다. 육적인 헌신과 혼적인 헌신은 영적인 헌신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만든 전통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도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헛되어
나를 경배하는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의 계명’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말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계명’이라는 단어는 ‘엔탈마’(עֲוֹנוֹתָא)로써 사람이 만든 계명을 뜻합니다. 신약에서 3회밖에 쓰여지지 않은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구약의 70인역에서는 4회 쓰여졌습니다). 그런 독특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아는 가장 정확한 말로 표현하자면 <전통>입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마 15:8-9)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이 교회는 이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 교회는 저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드림을 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성가는 마귀로부터 온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왜 그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전통’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훈, 즉 <전통>을 부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얼마나 전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전통은 흔히 찾아 볼 수 있을

니다. 가정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서도 전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에 대한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았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옷을 하 나도 걸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옷을 벗었고 여자도 옷을 벗었습니다.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경악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한편으론 ‘저들은 참 자유스럽게 사는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고 있으니 까 한 젊은 처녀가 시집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 처녀 몸을 날카로운 작은 칼로 흠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온 몸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처녀가 비명 한 마디 지르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수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행위가 그 처녀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런 몸쓸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족민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갑니다. 땅을 파서 그 여인을 흙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떨쳐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혼자서 흙 속에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전통>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아마존 지역에 사는 부족민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점잖게 보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전통일지라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 봤을 땐 우리가 아마존 부족들의 전통을 보는 것과 같은 전통이 왜 없겠습니까? 이처럼 전통은 엄청난 무게로 사람들의 삶을 누릅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대의견을 내 세우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 세울 땐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배격하고 집단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되고 쫓김을 받을까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도 바로 <전통>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은 사람의 계명으로 인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쳐야 할 부분을 가로 막습니다. 전통이 교회를 부흥시킬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세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예배는
무엇인가?

영적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육적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예배는 전통이 없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으로 재구성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예배 전 준비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성령님 오늘 예배는어떻게 인도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성령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음성을 전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나가거라”하면 앞으로 나갑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도 나의 영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거라”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시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저기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거의 2년 동안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 본문이 어떤 것인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설교 본문과 제목만 전해 듣습니다. 그것이 설교 준비의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지 말거라” 명하셨습니다. 나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에 놓였습니다. 지금껏 설

교를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전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합동측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단 위에 선다는 것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 반역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설교 준비 없이 단 위에 설 것을 강권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자니 많은 염려가 찾아 왔습니다. 애써 담대함을 가지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내 생각은 오늘 전할 설교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나의 모든 컨닝(?)의 노력을 막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나지 않도록 ‘멍’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 위에 섰습니다. 무슨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주제를 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성경본문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 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 다. 나는 속으로 “성령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성령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 다. 성경본문을 읽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 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본문도 다 읽었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전해야 할 지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 지 몰랐습니 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듯이 하늘을 쳐다 봤습니 다. 이제는 절망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 다. 성도는 설교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한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입에서 소리 냈을 때 갑자기 설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전해 온 것이 벌써 2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준비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밖에는 없음을 압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는 설교라서 그런지 성도들은 더욱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잠을 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말씀이 성도들 심령에 쏙쏙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설교말씀을 전한 후 그것을 녹음해서 집에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해 놓고도 설교가 끝나면 금방 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듣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설교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모든 찬양인도를 내가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단순한 준비찬양이 아닙니다. 감동있는 찬양도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도의 영이 활성화됨을 느낍니다. 찬양을 통해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느낍니다. 찬양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임을 느낍니다. 찬양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 한번도 빼먹지 않고 죄의 회개 시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죄의 회개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시간은 모든 예배시간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의 회개를 더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언급이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복음의 의미가 희석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죄의 회개가 드러납니다. 회개와 함께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욕망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육적 예배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영적 예배는 거룩한 제사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적 예배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고 “거룩! 거룩! 거룩!”을 외쳤듯이 우리의 예배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권위적인 말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가운데 입을어야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는 죄가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죄인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오직 육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죄인으로 왔지만 예배만큼은 의인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죄의 회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영적 예배는 죽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의 얼굴이 눈에 띕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울한 표정, 침울한 표정, 절망의 눈빛, 소망없는 모습, 소극적인 반응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피 있습니다. 아멘 소리는 크며 반응 또한 대단합니다. 조금만 웃긴 말을 들어도 배꼽을 잡으며 웃습니다. 하지만 죽은 교회는 코메디언이 와서 설교해도 전혀 웃지 않습니다. 죽은 무덤에선 잡초만 앙상할 뿐 꽃은 피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무덤에 회를 칠한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는 죽은 시신만이 남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으로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고 그곳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비유할 때 라디오 채널을 언급합니다. 라디오는 항상 소리를 전파합니다. 지금도 당신 주변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고유의 채널을 가지고 소리를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라디오가 없거나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결코 방송국에서 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듣기 위해선 소리 전파를 보내는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채널 번호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

질이 좋지 않거나 다른 방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라디오의 비유는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일치합니다. 라디오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소리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선 성령님의 고유의 채널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보내는 주파수는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라디오의 소리 전파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 사람 중에는 그 전파를 눈으로 볼 사람이 없습니다. 라디오의 소리 전파를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라디오가 없으면 결코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 전파를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라디오가 있어야만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의 소리가 공중에 떠있는 전파이듯이 성령님의 음성 또한 영적인 것이어서 볼 수도 없고 육적인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spirit)만이 성령님(Holy Spirit)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 영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대화를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 구절을 주의깊게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은 ‘프뉴마’(πνεῦμα)입니다. 이 ‘프뉴마’라는 단어는 그 뜻에 ‘성령’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할 때 반드시 ‘프뉴마’라는 단어 앞에 ‘거룩하다’는 의미의 ‘하기오스’(ἅγιος)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 구절에서는 ‘하기오스’라는 수식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맥상 그 ‘영’(spirit)이 성령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영’(spirit)에 대한 언급은 모두 ‘프뉴마’(πνεῦμ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언급할 때에도 ‘프뉴마’를 사용했으며 악한 영에 대한 언급 때에도 모두 ‘프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에 ‘하기오스’ 단어를 수식해 주듯이 악한 영에게는 ‘병어리 귀신’이나 ‘악한 영’처럼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영’(spirit)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마귀 역시 악한 영들을 통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영을 통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의 전부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진 육신은 이 땅에 서만 존재하는 썩어질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도 천국에서는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는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삶은 영(spirit)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으면 진작에 당신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쉽지만 않은 것은 우리의 몸이 육신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신의 덮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몸이 우리의 전부인양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름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장하고 뽐내며 교만하게 살게 됩니다. 이

미 설명했듯이 우리의 육신은 모두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진시황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죽었듯이 우리 또한 때가 되면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의 이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전 7:4)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간의 육신은 천국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훨씬 영의 세계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spirit)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성령)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영(spirit)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영(spirit)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창조과정에서 언급된 말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창조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

게 하자 하시고”(창 1:26)

여기에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צלם)으로 말 그대로 형상(image)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דמיון)로 ‘닮음’(likeness)니마 ‘같은 모양’ 혹은 ‘유사성’(similitude)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형상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단순히 영적인 형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형상을 지니신 분임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을 형상도 없는 무형의 영적인 하나님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대로 받아 드리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이 또한 사실임을 믿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런 다음 성경에서 그 뜻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모두 육신의 부모님의 유전자를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다르고 흑인과 황인종이 다르듯이 모든 인간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부모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자녀의 성격도 많이 부모의 성격을 닮습니다. 비록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만나 확인해 보면 부모의 성격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환상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출 33:23)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겔 1:26)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도요한은 “춧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계 1:13-14)라고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모세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에스겔도 시현으로 봤으며 사도요한 또한 시현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결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육신의 눈을 없애야 비로소 영의 눈이 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에 생기를 불어 넣으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될 때 당신의 영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코에 생기를 불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

전에는 결코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지금 육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이 글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맛보지 못하면 당신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그 생기를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기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연결고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당신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곧 연결고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당신에게 붙어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살아있는 영(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시현으로 본 골짜기를 기억합니까? 수없이 많은 해

골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죽은 시체였습니다. 이미 죽은지 오래되어 육신은 없어지고 앙상한 뼈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앙상한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며 인간의 모양처럼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저들이 외관상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겔 37:9)고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명하셨을 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겔 37:10)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환상일지라도 너무나 생생한 장면들을 에스겔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기’는 ‘루아흐’(רוּחַ)를 말합니다. 이 ‘루아흐’는 곧 성령님을 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세례를 언급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대언했던 ‘생기’ 또한 성령세례를 뜻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성령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성령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당신의 몸은 성령님

의 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고전 3:16). 이것이 성령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례를 받아도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수십년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충만을 가져다 주는 충전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모력이 있는 밋데리에 불과합니다. 성령충만을 충전하지 못하면 언제고 당신의 밋데리는 그 힘과 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큰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위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성령충만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그런 약점을 이용한 것이고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다시한번 성령님의 불어주시는 생기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생기’를 불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불어주고 계십니다. 그 생기를 공급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해진 당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나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왜 영적인 사람들인가 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적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롬 8:6)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일까요? 이미 성령세례를 받고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당신은 바울의 한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성령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말했는데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누구의 사람’이란 말인가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한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온전히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육신의 마음으로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10)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0)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나의 품고 있는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맞습니다. 내 영입니다. 내 혼(mind)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body)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영(spirit)이 나의 속 사정을 가장 잘 압니다. 이런 내용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속 사정을 제일 잘 안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 사정을 우리 영(spirit)이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의 속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 사정을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기 위해선 누구를 통해야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영’은 누구의 영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아시듯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평생을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능력이 있었으며 그 능력 배후에는 성막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아주 열심히 성막기도를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울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랬는데 베드로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까지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였던 스테반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찾아 갔던 나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예수님의 기도생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능력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며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능력의 제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의 제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

시고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갖는 또 다른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기 위해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님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중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 그렇게 멀고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토록 못 만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body)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
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

우리가 육(body)에 속해 있을 땐 성령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body)은 영(spirit)과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와 성령의 차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육체와 영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다면 당신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천군 천사들이 놀라워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행한 성령사역자들과 함께 한 성령님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나 능력의 사역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똑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능력도 같으며 행해지는 역사도 같습니다. 오

직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고, 누가 얼마나 육적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으십시오”(갈 5:24).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될 것이며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갈 5:25)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너무나 멋진 충고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충고를 따를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 것이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과 혼을 비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 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육신을 이 시간 죽이십시오. 당신의 육신이 살아 있는 한 결코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쁨과 희열이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안하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으로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

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3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만 대화를 나누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 지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정해 놓은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이미 당신도 알다시피 지성소는 성막의 맨 끝부분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목사님, 성막은 구약시대의 산물이 아닙니까? 요즘같이 성령시대에 무슨 왜왜묵은 구약의 산물이라뇨?”라면서 지성소에 대한 신뢰를 별로 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비록 지성소가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갇혀 있는 장소일지 몰라도 적어도 당신은 지성소를 떠나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뿐

더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를 가리켜 구약의 쾌쾌묵은 산물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셨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셨으며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러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던라”(민 7:89)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듯이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는데 오히려 지성소는 서쪽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려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성막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명이 있는데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물두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일반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막 뜰은 일반 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맨 땅에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뜰에서는 1년 365일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회막이 나옵니다. 성막뜰에는 지붕이 없는 반면 회막은 지붕이 있었습니다. 네 개의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둡습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성소는 정금등대가 있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아무런 빛을 내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정금등대에서 비춰지는 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실제로 불기둥은 지성소를 밝혔습니다. 불기둥이 지성소를 밝혔던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전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에만 허용된 특권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성

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는 번제단도 있을 것이고 물두멍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도 있을 것이고 정금등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분향단도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거, 너무 지나친 표현 아냐?’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는 필요한 성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몸 안의 지성소는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요? 모세의 성막에서는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미안하게도 우리의 몸은 어느 부분에서도 성막의 성물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몸을 해부한다고 할지라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을 때 그 ‘성전’은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눈과 코처럼 정해진 장소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어딘

가에 있을 지성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골방을 찾으라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지성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다소 한적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 하라고 하였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골방 기도를 통해

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기도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화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적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최대한 한적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홀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골방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당신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 준비한 골방은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성막기도를 드리십시오

골방을 성막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을 지성소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들어 가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자세로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사방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통해 골방은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될 것이며, 악한 세력이 당신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급적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몸이 불편하면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때 느껴지는 증상과 몸이 불편해서 느껴지는 증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편안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앉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할 경우엔 의자에 앉으십시오. 의자가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경우엔 바닥에 앉아서 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지도 않았습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

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의 경우엔 골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캄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게 되면 환한 불이 비취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막기도반에 편성되어서 반장의 인도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컴퓨터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반장의 인도는 성령님의 인도와 같습니다. 반장의 인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반장없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 오히려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제 아내와 영성을 시작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용했던 골방이 같았기 때문에 시간을 달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막기도반에서 반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

서는 안됩니다. 성막기도반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을 돕기 위한
입니다. 처음에 다소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
막기도반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막기도반에서 기도를 함께 드리
십시오. 그리고 홀로 기도 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십시
오. 그럴 때 당신의 영은 점점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서는 오직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성
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하루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리에 끈을 묶은 채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
어서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된다면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끈을 잡아
당겨서 죽임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끈을 묶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누
구든지 죄가 있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상
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성소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
눴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
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속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성막문을 통해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막에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담장 밑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 막았던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성막문을 통과하여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다음 성소로 들어가 진설병에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간구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금등대의 불빛을 의지하여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릴 때에 이미 모세의 죄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히 휘장을 들추고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히 4:16).

나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막문을 엽니다. 신앙고백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성막문을 통해 기도는 시

작이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주님에 대한 헌신을 약속했고 물두멍에서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진설병에서 삶에 필요한 것을 간구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였으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천사의 노래소리도 들었으며 주님을 만나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다시 한번 보혈을 뿌리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매번 영이 새로워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처럼 성막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 드리고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만나는 날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고 음성 듣는 방법입니다.

4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준비 조건

어느 날 성령님께서“인터넷에 글을 올려 놓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터넷에 글을 올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Daum.net 에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페를 이용해서 글을 올려 놓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카페나 블로그를 만드는 사용법이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글을 올려만 놓고 일체의 광고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지 못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이트를 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누구도 복사할 수 없도록 해 났기 때문에 나는 단지 이곳에 책을 보관해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책을 열심히 쓰지 않는 나 자신에게 조금의 채찍질을 가할 수도 있겠다 싶어 일단 카페에 내가 쓴 모든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신학교 입학 할 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 어느 새 아홉 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나의 책을 누가 읽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으로 출판하겠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권유로 일단 카페에 책들을 올려 놓게 된 것입니다.

카페에 글을 올려 놓은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아이디가 ‘무울’이라는 분의 글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카페지만 글을 올릴 때 말고는 자주 들어 가지 않았는데 교회를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되어 들어가 ‘무울’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분에게 글을 써 보내라고 허락하셨고 “만약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을 받기 원한다면 전화로 해 드리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매우 사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결국 듣지 못하고 지금에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과 한 차례 전화로 대화를 나눈 후에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압축해 주셨습니다.

나는 한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묻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다 들은 후 그것을 까먹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서는 “글로 옮기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펜을 집어 주위에 있는 종이에 방금 들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음식을 주문할 때 쓰는 대화나 다른 상업적이고 기계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시간을 물어 볼 수도 있고, 약도를 물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거나 TV에서 기자회견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대화의 단절

요즘 부부들은 대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잃고 산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금이 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부부는 반드시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중단되거나 끊기는 것은 관계 속에 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처럼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이사야가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다고 언급한 내용을 기억합니까?

“여호와와 손을 짚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우리 부부는 결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는 항상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함께 하는 부부도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부부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 방문했을 때 우연히 부부의 대화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서로 대화를 나누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오는 2시간 동안 내내 대화를 나눕니다”라고 우리 부부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의 예를 들어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교회 오는 1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요”라며 참으로 놀랍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부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합니다. 잠시 밖에 나갔을 때에도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차를 타고 장거리를 운전할 때도 마냥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느라 가급적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는 건들지 않는 편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로는 참으로 아내에게 미안했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차를 타면 곧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차에서 내릴 때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느라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아내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상대방을 알아 갈 때 깊은 대화가 가능해 집니다. 처음엔 걸치

레적인 인사말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깊어갈수록 대화도 깊어 갑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많은 부부들이 오래 살면 살 수록 상대방에 대해 지켜온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대화수가 줄어 듭니다. 그렇게 대화가 없어 질 때 사랑이 식어지고 싸움이 잦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대화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돌아 보면 대화와 현재 상황에 비례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변경하기에 바쁜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러했으며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 역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궁궐 옆에 장막을 지어 놓고 그곳에 안치한 언약궐에서 대

화를 나눴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조차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가인의 죄를 들춰 내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의인의 특권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나사렛이란 보잘 것 없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제사장 스가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 뿐일까요? 무엇이 달라진 것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성훈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영성훈련을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음성을 듣는 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을치유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감히 목사님 앞에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열심히 영성훈련을 통해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렸지만 저들을 반겨 줄 교회는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들의 영적 수준이 보통 목사님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에 은혜를 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수십년 다닌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성훈련은 훈련대로 했고 교회는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가도록 철저하게 못을 박고서 사역을 해 나갔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써 얻은 은사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고 저들의 은사는 시들은 꽃잎처럼 떨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성이 깊어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성 또한 깊어집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깊게 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고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요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집니까? 교회를 갈라놓고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일까요?

천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경을 읽어야 영생이 있는 줄로만 알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당신도 포함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은 이 글을 읽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은 우리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을 갖고 읽습니다. 어쩌면 ‘장로인 내가 그래도 성경 통독은 한 번 해야지’ 라면서 읽는 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려고 읽는 지

도 모릅니다. 성경퀴즈 대회에서 1등 하려고 읽는 지도 모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영생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것은, 성경을 만 번 읽어도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안겠지만 오히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천하에 못된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못된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의로운 세마포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20페이지씩 읽는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만 치켜 세우는 역할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야 말겠다”

당신이 성경을 이러한 목적으로 읽기 시작한다면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자주 만나면서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만 바로 읽어도 이렇듯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좋은 책들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단 성경만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한 시간도 있겠지만 당신의 영성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만남을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하나님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눈을 뜰 때도 “하나님”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 아니 듣겠습니까? 어찌 아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영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spirit)과 혼(mind)과 육(flesh)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숨을 쉬고 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혹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참 영적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

남이 나의 뺨을 쳤을 때 아무 생각없이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후려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mind)이나 영(spirit)의 영역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부싸움을 할 때 무조건 아내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

어 던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 밖에 모릅니다. 성인이 되기 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스스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남편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들 셋에 이기적인 남편 하나 해서 모두 네 명의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는 엄마(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교만합니다. 이기적인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지만, 교만은 ‘내가 최고’입니다. 둘 다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만을 훨씬 더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가 교만하고 모든 남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성격과 교만한 성격은 육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앞 뒤 안가리고 ‘나’만을 위하는 사람과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영역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오감(five senses)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오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TV보는 것을 좋아할 뿐더러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즐겨 봅니다. 육적인 사람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음악을 듣고 삽니다. 하루 종일 음악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지만 음악이 좋을 뿐입

니다. 후각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냄새가 나면 “아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더럽다고 불평합니다. 여자들의 향수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냄새따라 끌려 다닙니다. 아예 자신도 향수를 쳐 바릅니다. 냄새에 죽고 냄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각은 혀를 통해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은 먹는 것을 인생의 최고 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수입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먹습니다. 연애를 해도 먹고 교인들과 어울릴 때도 먹자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커피숍이나 한적한 곳에 나가 먹는 것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촉각에 예민한 사람은 남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장소가 바뀌어지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기 선교를 나가기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사람은 짜릿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면서 몸의 짜릿함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모임의 천국입니다. 유흥비가 많이 책정된 나라입니다. 직장이 끝나고 곧 바로 집에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엔, 직장이 끝나면 무조건 집부터 먼저 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곳을 먼저 들렀다 갑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만나면 무조건 술부터 술부터 마십니다. 그것도 2차 3차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셔됩니다.

우리나라 술값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세계최고라고 하니 여지간히 술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25%가 교회에 나가고 불교에 나가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세 명 중 한 명은 종교적인 사람인데 약국보다 여관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관광지에 여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관이 들어서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여관에서 며칠 쉬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나갔을 때 카운터에서 “손님, 물건을 모두 챙기셨나요?”라고 묻더랍니다. “네? 저는 며칠 더 있을 건데요”했더니 낮 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물건이 없도록 처리하라고 했답니다. 낮 손님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지금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저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결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육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

혼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지(intellect), 정(emotion), 의(volition)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intellect)는 지식 또는 인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책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배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emotion)은 감정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측은함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 같은 놈”이란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volition)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는 꿈을 성취케 합니다. 의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일들을 해 냅니다. 소위 위인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정의를 잘 갖춘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엘리트’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를 하며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는 소위 지정의가 뛰어난 사람을 존경합니다. 물론 요즘엔 돈이면 뭣이든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서 지정의를 고루 갖춘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정의를 고루 갖춘 ‘엘리트’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늦게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금방 감정에 치우쳐 포기하고 맙니다.

영성훈련에서 가장 방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혼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간해서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 놔야 하는데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 놔라고 하면 제대로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못 배우고 안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덜 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교회는 항상 문제 투성입니다. 이것은 다 혼적인 영역이 발달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혼적인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육적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한 번 성령체험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혼적인 사람은 곳곳이 살아있는 ‘잘남’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고

비어야 하는데 생생하게 살아있고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이기도 힘들고 비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결국 저들에게 임한 시험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아는 체”와 ‘잘난 체’ 하다간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영적인 사람과 같은 것이라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가득차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없

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적인 영역이 1%라도 남아 있거나 육적인 영역이 1%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1% 정도밖에 못 들을 것입니다. 100% 혼적인 사람은 0%밖에 못 들었습니다. 100% 육적인 사람도 0%밖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을 완전히 없앨 때 비로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일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음성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잠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로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확하게 영혼육의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성요소가 세 가지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해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image)입니다. 이것은 겉모양을 말합니다. 어떠한 형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는 형상이 없는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비형제의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모양’은 영어로 ‘닮음’(likeness)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형상’과 같은 내용으로 받아 드리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형상’이 겉모양으로 보여지는 형상인 것처럼 ‘모양’은 하나님의 내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내면을 닮았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을 닮았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우리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에 들어갔더니 아담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은 Living being으로써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영의 능력을 개발시키면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입으로 숨을 몰아 내쉬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에스겔도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겔 37:7-10)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나는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상 이런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끊어진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생기’가 없었던 아담이 아직 산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고, ‘생기’가 없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충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며,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이 살과 뼈는 붙었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저들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의 영적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 갑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누굴 닮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부모님 중 어떤 분을 닮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로 반드시 부모님의 육체적인 형상을 닮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땐 비정상적인 탄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신의 부모를 닮았습니다. 육체에는 혼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혼적인 부분은 ‘지정의’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와 완전 다르게 지정의가 형성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은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적치유를 하다보면 쓴뿌리 판단에 대한 쓴뿌리 기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나면, 부모의 쓴뿌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주정뱅이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 절대로 술 주정뱅이가 안 될 거야’란 쓴뿌리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술 주정뱅이의 아버지 모습이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쓴뿌리 판단에 대한 쓴뿌리 기대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방바닥을 손으로 닦고 매일 찬장에 있는 접

시의 수를 세는 꼼꼼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꼼꼼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융통성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이 나올 때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부모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은 육신의 부모님의 것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영역은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육신의 부모를 닮는다면 불교를 믿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불교 다니는 자녀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불교를 믿어도 자녀는 교회에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종교를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육신을 그곳에 갖다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녀의 영적인 영역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이며, 영적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적인부분과 혼적인 부분은 우리의 부모님을 닮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영적인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신령’의 원본을 보면 ‘영(spirit)’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니’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람처럼 아무런 형상도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수 있는 부분은 오직 영적인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란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엄연히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

게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바람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면서 마구잡이로 ‘마녀사냥’에 나서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병폐가 빚어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대해 잘 설명한 책?

우리의 영의 영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혼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셀 수도 없이 성경에서는 ‘영(spirit)’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알도록 해 주는 정리된 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 관한 책을 보면 여전히 제일 많은 분야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의 ‘영’이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

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고 실제로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서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서적을 접하였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7년을 집중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성경연구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간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눈에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때 제목이 “책 읽을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소서” 였습니다. 물론 많은 책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읽기 시작한 ‘논어’가 계기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는 심리책을 많이 읽었고, 대학교 때는 종교서적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는 것에 대해 설명한 책들의 대부분 내용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느낌 정도로만 설명할 뿐 실제로 성경의 인물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들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한 식으로 설명된 책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기 보단 애매모호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영(spirit)은 혼(mind)과 육(flesh)을 통제합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영(spirit)과 혼(mind)을 합쳐, ‘영혼’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그 만큼 영과 혼의 차이가 잘 구별되지 못하고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세상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혼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mind)께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들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과 혼이 함께 혼용되었듯이 많은 부분에서는 영과 혼이 서로 엄격히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

다.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이 구절로 볼 때 분명히 영혼육이 삼분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영과 혼이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어떤 때는 영의 뜻으로 혼이 쓰여졌거나 혼의 뜻으로 영이 쓰여진 구절들이 있어서 영과 혼의 구별을 짓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단별로 삼분설이니 이분설이니 논쟁의 주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것이 맞다고 정의를 내릴 때 상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분설과 이분설을 주장하는 양 쪽 모두의 사람들도 엄

연히 영과 혼과 육의 세 가지 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과 혼을 합칠 것이냐 아니면 따로 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의 중요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혼적인 부분과 영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영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 또한 영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롬 8:16). 우리의 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라디오 채널과 같아서 누구나 정확한 주파수만 맞추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영광을 돌릴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영의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영의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중요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영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영은 다릅니다. 생각의 주체는 ‘나’이지만 들려지는 음성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영역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영역’은 무엇이고 어디쯤 걸쳐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것이다(That’s it!)”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동의할만한 학설도 없으며 의학적인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단지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과 주장과 학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로교단에서는 인간을 영혼육 삼분설로 생각하지 않고 영혼과 육으로 구분짓는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적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목사님께 영혼육에 대해서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영의 영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여쭙 보십시오. 충분할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찾기란 많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소천하신 캐네스 해긴 목사님은 영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이셨습니다. 그 분의 30권이 넘는 책들을 읽어 보면 상당히 영적 영역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조차도 영적인 영역에 대해 깊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체험에 의하면 그분의 말씀하신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영적 영역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면 당신은 새처럼 날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영의 영역을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은 필요없습니다”란 말로 모든 해답을 정의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 사람도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도 ‘혹시 영적인 영역이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면 어찌할까?’란 생각으로 한 번쯤 귀담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곧 영적 영역이다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바로 영적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겉사람’은 우리의 육(flesh)과 혼(mind)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며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지에 대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속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속사람’을 알지 못하며, 남편이 아내의 ‘속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속사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겉사람’때문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 3:16)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능력을 입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속사람은 inner man 혹은 inner being 입니다. ‘속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겉사람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겉사람의 안에 있는 속에 뭔가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겉사람(육과 혼)은 죄를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22-23)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이 땅에 내려 온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의 육과 혼을 자극하며 사로잡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하지만 바울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 몸도 마음도 늙고 부패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와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겉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늙어지고 죽게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갖는 유익함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을 발견하기

당신의 속사람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속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속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속사람의 명령에 순응한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부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할 때에도 당신의 속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손해보다는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속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도 술만 마시지 말고 속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 때에도 속사람과 의논하십시오.

“어떻게 속사람을 인식할 수 있나고요?” 먼저 당신의 겉사람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겉사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육적인 영역과 함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부분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노동일을 해도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혼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갖습니다.

속사람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단어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혼(mind)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5분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금새 생각이 떠오르지요? 분명히 당신은 5분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에게 다가가 “친구야, 사랑해”라고 속으로 말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 당신의 음성이 들립니까? 친구에게 찾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상상이 되고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할 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무지 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생각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상상도 가능하며 누군가에게 찾아가 말을 걸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의 속사람 소리를 들어 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십시오. 물론 속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입을 열어 여러분 귀로 들리는 소리로 질문하면 안됩니다. 속으로 여러분의 영에게 물으십시오. 어때요? 잘 들리나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당신의 속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속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당신의 속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속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방을 갈 때 갑자기 속에서 “사과라도 사가지고 가야지”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음성입니다. 하

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 속에 있는 영의 음성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다가 안지하고서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닮아 간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윗도 육신의 죄를 범했습니다. 육신이 죄를 범할 때 자칫 잘못하면 속사람까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정상적인 사람은 기쁨보다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으로 낙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속사람도 낙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 42:11)

마치 다윗이 또 다른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숙 사람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성경이 다윗에 대해 잘못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겐사람이 속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겐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에게 명령을 내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도 있으며 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영)의 음성을 듣고, 속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은 당신의 속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육신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시작함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가장 본이 되는 기도는 ‘성막기도’일 것입니다(내가 쓴 ‘성막기도’의 책을 참조). 성막기도를 하게 되면 분향단에서 방언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성막문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소의 진설병에

서 생명되신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금등대의 상징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분향단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룹 사이를 지나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언이 끝나갈 무렵에 당신의 영이 극대화되어 나도 모르게 속죄소 앞에 와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당신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구도 없으며 찬양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만이 주님의 영광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의 기도시간에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질 때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 군데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를 보게 될 것이고,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모양과 천국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포옹을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중보기도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신 기도로 중보 기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각 나라를 함께 보여 주시면서 기도할 제목을 보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그 깊이와 크기는 한계를 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천사들 앞에서 설교도 해 봤습니다. 두 설교를 했는데 처음 설교는 두 번째 설교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교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곳 저곳을 방문하도록 했으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도 머잖아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오늘날 방언은 필요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방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조차도 당신이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경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가 밀려 올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방언도 당신의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가막히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당신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의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앞서 잠깐 성막기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막기도는 집중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 주신 기도는 성막기도와 언약궤기도입니다. 성막기도는 성막구조에 따라 순서대로 드러지는 기도입니다.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정금등대, 분향단, 지성소, 속죄소, 언약궤 순으로 드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막기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기도는 언약궤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성막기도에 포함된 기도이긴 하지

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 언약궤 기도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키게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언약궤기도를 잘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방기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언약궤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약궤기도의 영광체험

성령님께서 몇 개 안되는 성경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행하셨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때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셨을 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막 9:3)

베드로는 너무나 그것이 황홀하고 좋아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 살자고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저들의 기도에는 ‘언약궤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저

들의 기도를 기록할 때 ‘비몽사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
할 때에 비몽사몽간에”(행 22:17)

이 구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가서기도했을 때의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비몽사몽간에’란 단어가 들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사실 ‘비몽사몽간’이라는 한글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어로 보면 ‘엑스타시스’입니다. 여기에서 영의 ‘extasy’가 나왔는데 이것의 뜻은 ‘황홀, 무아의 경지, 환희의 절정’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trance’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기도할 때에 입신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된 것 가지고 너무과장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을 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구절가지고 너무 과장되이 표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불과 사복음서의 4~5군데 밖엔 다른 기록이 없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4~5차례밖엔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한 번 언급된 것이라면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일 겁니다. 성경은 친절

하게도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기도에서도 ‘비몽사몽간’이란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행 10:9-10)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비몽사몽’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쌍벽을 이루는 리더였습니다. 두 사람 다 입신을 경험할만한 영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입신을 해 본 사람은 경험하는 것이지만, 입신할 때생각은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성훈련을 시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영성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능력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느꼈던 ‘비몽사몽’이라는 느낌은 우리 모두 체험했습니다. 느낌의 강도는 틀릴지 몰라도 입신에 가까운 기도는 항상 체험하는 것입

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머리에 아지랑이가 올라가고, 손은 탱탱 부은 느낌이 들며, 손 바닥에 불덩이를 느끼고, 온 몸에 전류가 흘러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나면, 어느 샌가 육신의 감각을 잃게 됩니다. 정신은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육신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다 보면 금새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나간 것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보통 훈련자들은 2시간씩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도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의 영이 더 커지면서 능력의 종이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의 성격상 나는 호되게 훈련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도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은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하는지 ‘골방’을 만들고 그곳을 영광체험하는 가장 좋은 ‘나만의 장소’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골방기도의 효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결정적인 요인은 ‘골방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서

야 비로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언급하신 ‘골방기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예수님께서 ‘골방기도’의 위력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골방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렸던 적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기도하려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 가셨지만 정작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은 변형의 산에서 기도하실 때 뿐이었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골방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6장,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참조).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골방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영이 커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 이상하리만큼 영의 영역이 활성화 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혼자 있지 않는 장소는 ‘골방’이 아닙니다. 아무리 ‘골방’일고 우겨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골방’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아무도 근접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골방’이 옷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골방’이 자동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골방’이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골방’이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은,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직 골방기도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철야기도도 하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생활의 가장 핵심은 ‘홀로’ 하셨다는데 있습니다.

홀로 하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홀로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해 보니 어땁니까? ‘기도 한 것 같지 않다’란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함께 기도하는 것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무조건 함께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고 함께 철야기도를 합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곤 기도원밖

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기 위해 항상 기도원에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원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기도원 같은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홀로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깨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기도의 장소를 찾지 못하신다면 야산이라도 올라 가십시오. 아니면 화장실로 괜찮습니다. 우리 부부도 화장실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기도는 혼자 해야 영성이 커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성질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1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를 하면 쉽게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키스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동방의 예의지국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데모라면 몰라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할 때 지켜야 할 점

홀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을 확인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아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의 영을 느끼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의 육신과 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육신의 불편함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아픈 부분에 신경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간신히 느끼는 영의 부분이 한 순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최대한 영적인 상태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와 혼적인 기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육적인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이며, 혼적인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것과 찬양은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물론 몸이 강건하여서 2시간 정도는 끄떡 없다고 한다면 간구와 찬양을 1시간 정도 해도 1시간 정도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1시간 정도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영의 기도를 하게되면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시간 이상 된 것을 느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는 훈련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시간을 1시간으로 생각할 때 육신의 기도와 혼적인 기도시간을 30분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성막으로 비교하자면, 육신의 기도는 성막 뜰에서 행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혼적인 기도는 성소에서 하는 기도

입니다. 성막 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중석입니다. 부흥회 때 한 번씩 참석하는 정도의 사람들이거나 종교적 의식으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는 예배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도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물두멍에서 몸과 의복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이곳엔 회중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뜰에서는 헌신과 회개가 있습니다. 헌신과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뜰에서는 간구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재물을 위한 기도가 들립니다. 모든 기도가 “주세요”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소에서는 “감사합니다”란 말이 있으며 찬양과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상태만으로는 영의 영역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영의 영역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볼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출 34:34-35)

모세는 지성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도 1년에 하루(속죄일인 7월 10일)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특별제사장으로서는 1년 365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고전 3:16)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계 11:19) 이 땅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홀로’ 성전에 거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피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나를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물론 귀신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단어를 언급하자면 ‘악한 영’입니다.

아시겠지만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도 우리의 영에게 음성을 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전해 주실 때의 통로와 마귀가 음성을 전해 줄 때의 통로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쓴 ‘하나님의 음성듣기’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귀는 결코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단 한 차례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로 당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훈련자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일찍 미

국으로 이민을 와서 40년 이상을 넘게 미국인 이름으로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자신의 이름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도 잊고 지냈던 한국 이름을 성령님께서서는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 만큼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성령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 많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마귀는 나를 멸망시키려는 음성을 주고, 성령님은 나를 살리려는 음성을 주십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좌절, 절망, 실망, 패배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과 낙담에 생활의 의욕을 잃고 사는 사람은 제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설령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에도 긍정적이십니다. 그렇다고 “잘했다. 계속 죄를 짓거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늘 성령님은 그런 나를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랑과 공의의 비율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만 강조하거나 공의만을 강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공의만 강조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라”고 사랑 면을 극대화 시키거나, 아니면 “너는 죽일 놈이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라고 공의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공의를 50:50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의 음성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성경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말씀에 적합한 성경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코 성경말씀을 주지 못합니다. 마귀가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과 적합한 성경말씀을 주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의 속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이미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그래서 방언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상달되는 기도임으로 마귀가 방언기도의 뜻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오직 영

이 발달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육적인 사람이거나 혼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정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은 우리가 육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당신의 온 몸에 뿌리십시오. 당신의 가정에 뿌리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몸에 뿌리시고 당신의 배우자에게 뿌리십시오. 당신 집의 가구에 뿌리시고 부엌이나 방에 뿌리십시오. 특별히 TV나 컴퓨터에 많이 뿌리십시오. 음란의 영이 가장 많이 흘러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주님이 보혈로 덮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행하십시오. 방이나 기타 다른 주변에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죄를 짓고선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약간의 죄를 지어도 쉽게 음성 듣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사역자들이 은사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잘못 사용할 때 은사가 사라지는데 아주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은사가 사라질 때는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죄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음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죄까지라도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례요한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니라”란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결이 우리의 육신과 연관된 것이라면, 거룩은 우리의 혼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계명의 처음 네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먼저 챙기는 것은 모두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각오는 좀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결과 거룩의 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써 언약궤기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언약궤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아예 집중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봅시다. 지금까지의 준비 조건이 다 갖춰졌다면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ய요. 당신이 듣지 못해서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음성을 들려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영의 음성을 들었다면 상당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속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아들이(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생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한다”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다”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음성은 이미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음성자료입니다. 이미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을 지도 모릅니다. 혹은 포악한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충분히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은 당신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음성은 당신 스

스로 만들어 낸 것이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아버지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주체가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음성을 들려 주는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차이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영은 성령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육신의 귀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은 성령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당신의 영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 이뤄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미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잘 따르고 열심히 정결과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그 순간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를 외면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에게 말입니다.

당부의 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이 뭇이지 아십니까? ‘사모함’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것도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 사랑이 깨지거나 변해 버릴 때 죽음과 비교할 만큼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만큼 사랑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인처럼 당신의 ‘사모함’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장미꽃을 들고 연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골방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가장 값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일 겁니다. 평생을 노력한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음성을 듣고 싶어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남들도 들으니까 나도 들어 봐야지 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함’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과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삶에 맺

혀집니다. 그 풍성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찾아 오고 그의 삶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늘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한 사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대화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성령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당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요

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책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들이 저마다 갖는 공통된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가?’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국제성경연구원에서는 2-3개월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면담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점검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그 점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할까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선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을 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예수님도 보혜사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한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달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것과 주님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말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성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원죄를 파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깨끗케 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서
음성을 듣고 있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0-11)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공기나 연기처럼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성구 중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영은 잡히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육체라는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무형의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시니’라는 구절의 의미를 무형의 성질의 것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군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출 33장). 에스겔이 주님의 형상을 봤고(겔 1장), 사도요한 역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계 4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역시 영적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 역시 영적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

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을 만들 것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부만 물려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영의 음성인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마치 자신의 목소리처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어쩌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와 같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란 말을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령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나 우뢰처럼 소

리가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목소리가 마치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의 소리와 비슷하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마치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로 당신의 목소리입니까?”라고 되물으면 한결 같이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목소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보통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일 것이고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집중을 매우 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성을 보면 일반 성도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영은 매우 깨끗하며 맑고 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저들의 영성이 뛰어난 것을 통해서 저들의 영은 성령님의 영에 비해 매우 비슷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점점 주님처럼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똑 같이는 되지 않을까요? 몰라도 영성훈련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주님처럼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성이 뛰어난 사

람은 성령님의 속성을 매우 많이 닮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으며 쉽게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속성과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너무나 자신의 목소리와 흡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음성은 본인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과 내 음성을 너무나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내 목소리처럼 낮은 톤이지만 감히 내가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의 깊고 차분한 음성이십니다. 성령님의 목소리 그 자체만으로 위엄이 있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에 젖어 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 음성을 들을 때 들은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음성인지를 분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성령

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하다란 생각이 들지라도 자세히 들어보면 분명히 다른 음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 보십시오. 성경의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 아무 구절을 선택 하십시오. 당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라면 더 좋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에 대해서 성령님께 여쭙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에 대한 구절을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곳에 보면 12지파 중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주석을 봐도 왜 단지파가 12지파에서 언급이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유를 설명하다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주석은 그 이유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왜 단지파가 그곳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들려 주신 음성이라면 그것은 내 지식과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낸 음성은 ‘상상음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임신하지 않았어도 ‘상상임신’을 통해

임신한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신했는가를 점검해 보면 진짜로 임신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도 그러한 점검을 통해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을 들어 보십시오. 나의 미래에 대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몇 시간 후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보다 잘 듣는 사람의 경우엔 상당히 미래에 대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도 성령님께서 미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들려지며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훨씬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일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지금 누가 네 교회를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김새와 나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배처소는 수많은 상가가 놓여져 있는 한인타운 빌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예배당 앞에 왔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나

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으로 인도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성령님께 종종 묻곤 했습니다. 처음 음성을 들을 땐 잃어버린 물건이나 길을 찾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돌거라. 그런 후에 10분 정도 곧장 가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장소가 나올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제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는가?

모르는 길을 척척 찾게 해 주시는 성령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뭣이든 알려 주시는 성령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100% 다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신발이 없어졌을 때 처음으로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가 보라고 하셨고 그곳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신발을 못 찾아 약속시간에 늦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틀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 바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따졌습니다. “성령님, 저는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틀린 것이죠?”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는 것인가요?”라고 의심이 가득 찬 소리까지 성령님께 들려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불만 가득한 불평소리에도 아랑곳 않으시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요술램프의 알라딘 정도로 취급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불충을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들은 내용 중 완전하지 않은 부분만큼 덜 완전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덜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입견 때문에 정확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록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이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전해 들은 내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 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물론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함께 기쁨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너무나 큰 위안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 중에 밥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더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덜 유명한 예언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분 역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예언은 다른 사람의 예언보다 훨씬 잘 맞추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예언 중 80%만 맞아도 황재한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100% 맞는 것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지식은 100%이며 완전하십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능력 또한 100% 완전하십니다.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며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음성을 듣지 못하고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처럼 깨끗한 사람은 성령님의 100% 음성에 가까운 정확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100% 가까운 능력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성령님께서 왜 줄곧 나보고 “정결과 거룩, 그리고 집중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틈만 나면 “성령님, 어떻게 하면 큰 능력을 받으니까?”라고 여쭙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정결과 거룩과 집중밖에는 능력을 받을 길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음성을 들었을 때였고 아주 초창기 때의 일이었기에 지금처럼 사역이 확장되거나 정리되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서 성령님께서 쓰라고 명하신 글들을 보니 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선 “성령님께서 옳으셨습니다”란 고백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이 서로 다르게 들을 수 있나요?

성령사역자들을 훈련할 때 문제로 들어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훈련 중에는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거나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만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한번은 장모님에 대해서 여쭙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훈련자들은 내가 장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한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스무고개게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20번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훈련은 20개의 질문은 고사하고 단 한 개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별도 모릅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줍니다. 직분도 모르고 성격도 모릅니다. 그냥 모른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자들은 그 어떠한 지식이나 감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 여쭙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 모든 사람이 공통된 내용을 받습니다. 일단 성별이 다 맞습니다. 직분도 다 맞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영적상태도 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두 명이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엔 12명의 훈련자가 있었고 12명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훈련은 단 한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카락 수가 똑 같기를 원합니다. 키가 160센티미터로 똑 같아야 같은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안수집사 몇 년째인 것이 똑 같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혼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혼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좀처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그 사람이 좌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당신은 세상에 쏙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으로 내 글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머리로 내 말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 앞에는 향기나는 커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소리가 분위기를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세상에 깊게 빠져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곳이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또한 세상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음성은 세상적인 수치나 개념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주택복권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

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사람들이 즐겨 하는 농담스런 소리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수치나 개념이 필요할 때는 언급해 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령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재정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틀린 단어이지만 영적으로 이해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면 분명 당신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을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극단적인 다른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단어가 틀리다는 이유로 성령님의 음성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음성을 잘 못 듣는가 봐요”라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 저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가 봐요”라며 자신을 마귀에게 내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것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위에 있을 수도 없으며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서로 다르게 들려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방언통변을 할 때에도 통변자들의

통변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모두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통변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방언통변을 하는 것이지 통변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통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보통 방언통변을 하고 치유의 과정을 밟으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회복을 얻게 됩니다.

통변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대방에 대한 치유이기 때문에 통변의 내용은 양방통행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말씀도 함께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영적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통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통변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어떤 통변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상처부분이 주로 언급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의 부분만 보더라도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지은 죄에 대한 죄가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은 죄나 친구에게 지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것만 살펴봐도 너무나 광범위해서 여기서 일일

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것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방언통변을 하면서 치유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무나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로 뒤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어린아이들 장남감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졌고 복잡한 감정으로 뒤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또한 복잡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0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음성을 들으면 각각 다른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내용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당신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다르다는 것에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조차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의심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편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만 더 깨끗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성령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무당의 음성도 아니며 점쟁이처럼 정답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성령사역자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점쟁이에게 묻듯이 합니다. 자신에게 뭔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 묻습니다. “오늘 치유집회에서 몇 사람이나 나올까요?”라든지 아니면 “오늘 치유집회 때 어떤 환자들이 낫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마치 부부가 밥을 먹고 잠자리에 같이 누워 자면서도 하루종일 인격적인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캐터린 쿨만 여사가 집회를 할 때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쿨만 여사는 모든 음악소리를 멈추라고 명했습니다. 합창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르แกน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에서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쿨만 여사는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제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쿨만 여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쿨만 여사는 성령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쿨만 여사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자신이 얼마나 은사주의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 제대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지만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란 그야말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당신에게 뭔가 뚝 떨어지는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6과



영의 골방을
찾으라

성막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골방’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골방은 히브리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이 말은 ‘곳간’ ‘밀실’ ‘내실’을 뜻합니다.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직 4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도를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독특한 단어인 ‘골방’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설명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강력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일평생 ‘골방기도’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의 골방

주님께서는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마 1:35)”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장소가 한적한 장소이며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골방기도’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방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골방은 은밀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골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골방은 옷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다락방과도 같은 형태의 골방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옷이 많이 걸어져 있었고 이불 같은 짐들이 뽁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한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이 옷장은 정말로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 어딴어?”라고 묻는 소리가 내 마음을 자극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피해 숨어 있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사를 하여서도 옷장은 매우 좋은 장소였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몸이 들어갈만한 옷장이 없어서 궁리 끝에 집 바깥의 창고를 개조하여 골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차 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골방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골방은 외부와의 단절된 곳이면 어떤 장소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곳이 옷장이든 창고이든 차 속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와의 단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오직 한 사람만 허용하는 장소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방의 성격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한적한 곳’이라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의 골방을 찾으라

비록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다니시며 홀로 골방기도를 하셨지만 시간과 환경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기도시간을 방해하였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한 골방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나 산을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이나 철야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육의 골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골방’을 찾아야만 합니다. 영의 골방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골방을 말합니다. 육의 골방이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골방을 의미한다면 영의 골방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의 골방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골방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골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의 골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육의 골방에 나의 육신이 들어가듯이 영의 골방에는 나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영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영의 골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육이 골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의 골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영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졌다고도 합니다. 어떤 말이든 상관 없습니다. 비록 영, 혼, 육으로 구분하지 않았을지라도 영과 혼과 육의 구분이 존재하다는 것을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설적으로 삼분설이다 이분설이다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있

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을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은 나 자신의 속사람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롬 7:22)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 3: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사람의 겉사람은 육과 혼을 의미합니다. 육은 몸(body)를 의미하며 혼(mind)은 지정의(인식, 감정,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

지만 영(spirit)은 육과 혼에서 구별되는 고유한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의 영역을 한번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자신의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모두 우리의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과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노력은 속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영적인 영역에 의존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저들의 영적인 영역이 저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가장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과 혼의 영역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의 영역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우리의 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영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영을 깨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 4:15)”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일 4:13)”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실 때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욕정들이 점점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육과 혼의 정욕이 성령님을 통해 점점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깨어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영의 골방에서 기도하라

일단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기도’는 곧 ‘영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우리의 육신이나 혼의 영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영으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천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

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영의 골방에서 더욱 현실화됩니다. 물론 육의 골방에서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바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육의 골방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영의 골방의 활용

영의 골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5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아주 빠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수준이 높은 단계의 기도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의 골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2-5분 정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리 힘든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처에서도 언제든지 그 정도의 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바쁜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신은 홀로 있어야 합니다. 2-5분의 짧은 시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환경도 한적한 곳이면 최상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의 골방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화장실도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냄새나고 다소 지저분한 장소이긴 하지만 영의 골방을 만들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일단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영의 골방을 자주 활용할 때에 이제는 뭔가 하고 있을지라도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있다고 합시다.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을 주시해야 합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손은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에 집중할 때에 금방 성령님과 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집중할 때에 영의 골방을 잘 활용하는 것입

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영의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식사를 함께 할 때에도 얼마든지 영의 골방을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의 골방의 효과

이렇게 영의 골방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처럼 영의 골방을 통해 성령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에 해당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확장되며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다. 신유은사를 포함하여 각종 능력행함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언과 영분별을 포함하여 방언과 방언통변의 은사가 확장됩니다.

더욱 귀한 영의 골방의 효과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기도는 오직 영의 골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영의 골방을 찾고 활용하여서 성령님과 무시로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7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실로 큰 축복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람만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스스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찾아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그 인식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제성경연구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적인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열거되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그 어떤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들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갈같은 가련한 여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사무엘같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들은 것에 대해 교회는 침묵하였습니다. 성경조차도 평민은 읽을 수가 없었던 영적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차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이제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욱더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욥 2:28-29)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적었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은사자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충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기름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국제성경연구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위킹워드바이블이 세워진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라"(말 4:5-6)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듣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또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워킹워드바이블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워킹워드바이블에 특별한 기름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듣는 12단계

지금부터 워킹워드바이블의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을 듣는 사람들의 단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음성듣는 단계를 구분하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음성듣는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신은 어리석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1단계:

전혀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듣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전혀 시도하지 않았고 마음 속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힐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새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인척 모양을 내며 살아가는 앵무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이상한 이단학설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 10:3)

2단계:

음성을 들었으나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하나님의 음성듣기 훈련을 받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예요?"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저도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네요..."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세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
 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
 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
 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
 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11-
 13)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
 성으로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리를 막
 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리를 듣는 곳은 우리의 '귀'입니다. 우리
 는 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
 해 매우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

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킹워드바이블의 영성훈련을 받으면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빨리 가능한 이유는 워킹워드바이블의 영성훈련을 통해 세상의 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킹워드바이블의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함께 세상의 소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분주합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은 우리를 더욱 바쁘게 만듭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40-42)

하지만 워킹워드바이블은 오직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워킹워드바이블의 모든 훈련은 '기도'입니다. 워킹워드바이블의 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골방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골방기도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워킹워드바이블을 통해 간단한 것이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워킹워드바이블을 통해 베풀고 계신 은혜인 것입니다.

3단계:

영감으로 느끼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영감(영적인 감각)으로 느낍니다. 물론 부부가 말이 없이도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눈 부부는 훨씬 더 사랑이 깊습니다.

워킹워드바이블은 영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

치지 않습니다. 영감이 나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감을 선호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번 말이 없어지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말없이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고 맙니다. 그러다보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워킹워드바이블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려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감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영감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은사'가 '관계'보다 훨씬 두드러져 보입니다. 영감을 의존하는 사람에게서 찾아 볼 수 있었던 특징은 '은사주의'라는 것입니다.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고 영적인 감각에 의존하며 능력을 행사하는 사역자들은 결국 은사주의자가 되어 워킹워드바이블을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워킹워드바이블 '관계주의'이기때문입니다. 관계주의라고 해서 은사주의처럼 또 다른 어떤 것이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워킹워드바이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4단계:

짧은 단어를 듣는단계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아주 짧막한 단어로 들려집니다.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들리기도 하고 "기쁨"이나 "헌신"같은 짧막한 단어가 들립니다.

이렇듯 짧막한 단어가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영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짧막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심령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과 '신령'은 모두 같은 '영(Spirit)'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우리의 영을 통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과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교회모임에 출석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영적인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기 보다는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이 보다 활성화된 모습입니다.

이렇듯 육과 혼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성령님이 옆에서 내 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걷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지만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안에 거하십니다. 만일 성령님이 육적인 하나님이라면 어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바울은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사실도 알았습니다. 성전인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오직 영으로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수고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영으로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5단계:

긴가 민가 의심하는 단계

이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렵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체험하신 것과 같이 저 또한 아주 힘들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성령하나님이시다'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지금 제게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라고 되물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은 성령하나님의 음성일거란 생각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맞다고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 속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령님께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음성이 틀렸을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들은 내용이 틀렸을 때 곧장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틀려요?" 성령님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100% 음성을 주었지만 네가 준비되지 않아서 틀린 것 이란다."

성령님은 음성을 보다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네가 10% 정결할 때 너는 나의 10% 음성만 정확하게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더욱 정결할수록 더 정확한 음성을 듣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부분적인 것만 듣

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10% 정결하면 10%의 정확성만 있는 것이고, 80% 정결하면 80%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듣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찌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듣는 것에 대한 가르침보다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음성듣는 것에 대해 의심이 사라지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음성듣기였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가르침은 성경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구절이 나오면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구절을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제게는 참으로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신학교때부터 모와놓은 많은 영문 주석과 함께 한국어로 된 좋은 주석들도 많습니다. 막힌 성경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여러 주석을 뒤지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취미생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 주석을 다 뒤져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 그 구절을 해석해 달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녹음기 틀어 놓은 것처럼 해석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빨리 줄줄줄 흘러 나오기 때문에 빠른 말로 따라 해도 늦을 정도로 빨리 해석이 흘러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구절해석이 성령님께서 해석해주시면 그토록 줄줄줄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막힌 성경구절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성령님께 여쭙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복권 번호를 알게 해 달라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취급하는 불경스러운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찾아가 세상적인 것을 질문하여 답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쟁이처럼 세상적인 것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히는 자에게는 두려운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들 물건을 찾거나 길을 헤맬때 자주 성령님께 여쭙곤 했습니다. 꽤 유용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나 길을 찾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성령님, 왜 틀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은 "네가 세상 것을 구함이 어쩔이나?"라고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예전에도 옳으셨고 지금도 옳으십니다. 저는 성령님이 항상 옳으신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의 성령님과 대화의 통채 단 한 번도 성령님이 틀리신 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당신에게 의심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성령님과 그 부분을 놓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님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6단계:

집중할 때만 듣는 단계

그렇게 짧은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의 경우도 이마를 아주 찡그리며 쥐어 짜는 듯한 집중을 해야만 간신히 길이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하

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세미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매우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갖은 인상을 써가면서 집중하여 음성을 듣는 것이 한 달 정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마쪽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마쪽에서 음성을 들을 때는 오만가지 인상을 따 써가면서 어렵사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쪽으로 옮겨진 후에는 그런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들게 들은 이마쪽에서는 매우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가슴 쪽에는 음성이 매우 희미했습니다. 이마쪽에는 매우 좁은 느낌이었는데 가슴쪽에는 매우 넓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한 달여 가량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쪽에서 들리는 음성이 다시금 머리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장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장소는 이마 앞쪽이었는데 두번째 옮겨진 장소는 뇌 중앙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장소에서는 지난번처럼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어떤 장소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마 부분에서 들을 때에는 기도실에 가야만 들을 수 있

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하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쪽으로 옮겨졌을 때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때도 기도실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 중앙 부분으로 옮겨진 이후부터는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들을 수 있었고 화장실에서든 가능했습니다.

워킹위드바이블에서 하나님의 음성듣는 훈련을 하다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뇌에서 음성을 듣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뇌 앞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뇌 위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분은 귀 안쪽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장소는 뇌 안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단 7:1)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을 뿐 아니라 환상도 매우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뇌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장소 역시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뇌 안에서 이뤄집니다. 물론 환상은 음성을 듣는 것과는 약간 다른 위치입니다.

음성 듣는 것이 뇌 중심 부분이라면 환상은 우리의 눈이 있는 부분으로 조금 앞 쪽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뇌 속에서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음성과 환상 모두 뇌 속에서 듣고 보여진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도 비슷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음성을 듣는 분을 위해서 저의 체험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장소를 뇌쪽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의적으로 그 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랬듯이 가슴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배에서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린 후 장소를 뇌쪽으로 옮겨보라고 하면 아주 빨리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선명한 음성을 듣는다고 모두들 대답했습니다.

8단계:

물어 보는 것을 듣는 단계

성령님은 물어보지 않는 것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아주 답답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하

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전혀 먼저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당신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뭔가를 여쭙기 위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그것이 영적인 대화 장소를 찾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빨래를 할 때에 사용되는 장소도 아니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공부할 때 사용하는 장소도 아니며 TV를 볼 때 사용되는 장소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장소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항상 성령님은 먼저 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그 장소로 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먼저 내게 말을 꺼내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여쭙아야 합니다. 많이 여쭙는 사람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역시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고후 9:6)

9단계:

서로 짧은 대화가 되는 단계

이렇게 성령님께 자주 여쭙다 보면 서로간에 대화가 오고갑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대화보다 훨씬 좋습니다. 성령님은 다 한 번도 저를 꾸짖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령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용서하셨으며 감싸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친절하셨으며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성령님께 죄스럽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대화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 없는 부부사이처럼 성령님과 대화도 매우 짧은 대화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짧은 것은 긴 대화에 비해 좋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가 길면 길수록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10단계:

긴대화가 이뤄지는 단계

성령님과 짧은 대화는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긴 대화가 됩니다. 그러한 대화가 매일마다 이어집니다. 혹자는 "무슨 대화가 날마다 그렇게 길어요?"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대화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오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성령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하는 일이 일곱군데의 세탁소에서 옷수선할 것을 수거하고 갖다주는 일을 했기때문에 일곱군데의 세탁소를 돌아 오려면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제게는 그 3시간이 황금시간이었습니다. 차를 타면 "성령님, 저 왔습니다"라고 성령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잘 왔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성령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앞의 차의 운전사에 대한 대언의 말씀도 전해 듣고 그 사람의 환상을 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성령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선할 옷을 가지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거의 하루종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가 길어지니까 아내와의 대화도 길어졌습니다. 사실 성령님과의 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 3시간을 아내와 대화나

누는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대화로 인해 아내와의 대화시간이 없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와의 대화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령님과 대화는 아내와의 대화를 더 길게 만드는 것이 확실합니다.

11단계:

무시로 대화를 나누는 단계

이렇게 성령님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되니 전형적인 성막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막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막기도를 제대로 못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기도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성령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하루종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삶의 형식이 사라졌습니다. 성막기도를 형식에 맞춰서 드리지도 못하였고 예배도 준비없이 서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하고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님과 대화를

나났기 때문입니다.

워킹위드바이블이 부흥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주일에 100개 이상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모임을 다 일일이 점검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껏 워킹위드바이블을 인도해 오면서 영성일지를 읽으며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달았습니다. 실수로 빠진 영성일지나 훈련반 체험일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성일지에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에너지도 많이 빼앗깁니다.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린 날을 채우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여간해선 쉬려고 안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기때문에 눈코 뜰새가 없이 일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언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
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하루는 성령님께서 "다윗아, 눈을 뜨라... 눈을 뜨고서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을 감아야만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안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점점 대화를 길게 나누십시오. 짧은 대화를 긴 대화로 바꾸십시오. 그러다보면 어느새 무시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단계: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듣는 단계

이렇게 눈을 뜨고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다보니 일상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영성일지를 읽고 댓글을 달면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안듣거나 사람에게 말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대로 행동하면서도 성령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환상보는 것도 눈을 뜨고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인도따라 해 보니 가능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

저는 처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 2개월이 지났을 때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셔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개척을 바로 시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일뿐 성령님은 제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척할 때까지 거의 6개월동안을 기도만 했습니다. 아내가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집안 일은 제가 맡았습니다. 제 장인어른도 저와 함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도실이 생각납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갈 때 성령님은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라 하셨습니다. 지을 때 확인해보니 거의 500명의 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6개월 기간 동안에 한국마켓 아주머니를 잠깐 얼굴만 본 것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했을 때 성령님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주일예배를 드려라고 하셨습니다. 장로교 출신 목사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늘은 노랑고 제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지나갔고 그렇게 즉흥설교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즉흥설교를 해 온지 벌써 4년이 돼갑니다.

워킹위드바이블이 걸어온 길을 보니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 3년동안에 첫 1년 동안은 채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첫 1년 동안은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성령님의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영성일지 댓글도 내 맘대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허락을 받고서 올렸습니다. 이메일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함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와도 모두 제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게 전화를 하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워킹위드바이블 2년째부터 성령님께서 채팅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째 되었을 때 전화를 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배인도자나 사역자들과 간간히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전화기에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식구 포함하여 5개가 되지 않습니다. 식구가 10명도 넘는데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워킹워드바이블이 4년째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전화상담 사역을 시작하라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한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마치 판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어제까지 세 분과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5년 만의 일입니다. 물론 아주 간간히 전화상담을 한 분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그야말로 1년에 한 두 명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끊지 않으면 성령님도 없습니다. 세상을 끊어야 성령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세상과의 근절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5분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를 망가뜨린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끊으신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사람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상을 끊으셨습니다. 나와 연관된 세상 사람을 끊으셨습니다. 저는 수 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은 훈련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으로하여금 세상과의 단절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면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세상을 떨쳐 놓으려신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5년 동안의 훈련이 주마등처럼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백만 번을 생각해도 '나같은 죄인이 어떻게 워킹워드바이블을 인도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도 압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워킹워드바이블을 마음껏 활용하시도록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 놓았습니다. 부디 워킹워드바이블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저들의 상처가 치유되어 의의나무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8과



예수님의
기도생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때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으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변론에 참여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막 9:16)

여기서 ‘변론’은 ‘논쟁(argument)’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막 9:18)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왜 우리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에겐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온 그 사람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

서”(막 9:22)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예수님의 호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즉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
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막
9:24)

진정한 기도

예수님은 아이의 몸에 들어 있는 귀신을 쫓아 내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막 9:28)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9)

당신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또 대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목사님은 한 날을 정해 놓고 모든 성도가 모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중 80% 이상 참석하고 모두 금식하고 기도하면 안 이뤄질 기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 날 하루를 금식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수 백 명이 한꺼번에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그 자매는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자매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기도라면 왜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새벽예배 시간에 10분 혹은 20분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철야기도 시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올려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나의 의견만 말하고 끝내는 대화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간구 내용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후에 급히 교회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씩씩해 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이런 기도는 의사에게 가서 “나 이곳 저곳이 아프니 꼭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고선 급시 병원문을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생일지라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을까요? 그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기도를 흉내만 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만으로 다 채워진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며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입장에서 기도한 것은 당신 입장에서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간구를 다 아뢴 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나무로 만든 신이나 금으로 만든 신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십니다. 당신이 무시하면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당신 의견보다 하나님 의견에 더 귀 기울이십시오. 소래 내어 간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 할애하십시오. 백마디 외침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정확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 받으신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으셨으며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 나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셨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받으신 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부분을 누가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신 스스로 찾아보면 어떨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

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1~22)

찾으셨습니까? '기도하실 때에'라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혹 이전에 이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놀랍게도 누가는 '기도하실 때에'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하실 때에'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구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세례 장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적게 그 차이점을 나열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실 때에'가 의미하는 보다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나라의 교회치고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예배만 자그마치 5부 예배로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없어 비어있는 시간이 부끄러울까 봐 시간마다 예배하는 모습은 새벽 별들도 놀라 잠에서 깬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하지만 예수님의 새벽기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새벽 기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도를 홀로 하면 어떻게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이지만 함께 하는 기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골방'은 헬라어 <타메이온>으로 '골방' 혹은 '밀실'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을 말하실 때 그것의 의미는 홀로 거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윗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는 '은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은 헬라어 <크립토스>로서 '숨음', '은밀한', '비밀의'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도의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은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물론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위해 나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눈치 때문에 나오는 분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로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교인들 기도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없을까요?

맞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해 보신 분만이 알 수 있지만, 골방기도에는 뭔가 숨어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것 같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참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집안에 있는 잠신에게 기도하는 느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같았는데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치 잠신에게 기도하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할 때는 통성으로도 하고 음악에 맞춰 큰소리로 할 수 있었는데 웬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성스럽고 화려한 예배당이어서 앉아만 있어도 거룩한 느낌이 들었는데 집에서 기도하니 웬지 초라하고

기도 같지 않는 느낌을 받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철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심했습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새벽기도를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한적한 곳으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적한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은 혼자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엌을 개조하면서 조그마한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방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제법 컸습니다. 그 방은 나의 방이었고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곳은 옷장입니다. 옷들이 걸려 있고 옷 박스가 즐비하게 놓여져 있지만 눈만 감으면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밀한 장소로 바뀌고 맙니다. 내 아내는 화장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조금은 더러운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일(?)보다 기도에 열중한 내 아내의 중심을 보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차 안은 매우 좋은 기도 장소입니다. 좁은 장소일수록 영광체험이 강합니다. 기도 장소가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자꾸 옮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 장소는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고전 3:16).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영성훈련에 참여한 제자 중에서 아주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골방"에 대해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새벽기도의 맛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백 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의지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에 골방에서 기도를 했더라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분위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통이나 형식에 따른 기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훈련자들에게 '골방'기도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면 '골방'기도를 하십시오.

시오.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골방'기도를 적극 권합니다. 그 어떤 추천도 예수님의 추천보다 더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화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음모에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판에 한가롭게 기도하시다니요?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눅 6:11~12)

아닙니다. 그냥 한가롭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위험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어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곳 갈릴리 사람들이 화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3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 만이 유일하게 병고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보다 더 낮은 것으로 취급한 예수님에게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눅 4:28~30)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까짓 위험을 모면하지 못하시겠습니까?”라고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말대

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내려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셨으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지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나 나처럼 똑 같은 인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결코 단 한번도 자신을 위해 하늘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지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가지셨던 100% 인간이셨다는 사

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보다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건장하고 잘생긴 예수님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내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한 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사 53:2)

위의 구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셨으며 풍채도 없으신 흠모할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 받는 나사렛 마을의 어느 보잘것없는 여인을 어머니로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짐승들을 모아 놓은 마굿간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귀한 만아들을 구유(짐승 먹이통)에다가 뉘이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가정의 생활은 너무나 형편 없는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평생토록 자식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평생 집 한채 가져보지 못하고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제자에 의해 배신을 당했으며 몸 값은 노예를 살 때 지불되었던 금액인 겨우 은 삼십 세겔이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이 로마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으며 누구 하나 함께 죽겠다고 달려든 제자도 없었습니다. 로마군인들로부터 침 뱉음과 뺨 맞음과 가시면류관의 갖가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해야 할 효도를 남의 자식(사도요한)에게 어머니를 떠 맡겼습니다. 죽으셨어도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당신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결코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당신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서 갈릴리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사해서 저들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선지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눅 4:24)

또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이려고 달려 들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정도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구원 받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닥친 것은 낭떠러지는 아니었지만 불가마 속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죽이고자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궜지만 저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 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살아남은 저들에게 위기를 극복할만한 능력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들은 우리와 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셨을거란 생각은 낭떠러지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위기와 위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내가 영성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 매달려 살아가는 사

람들을 약한 사람들로 판단했습니다. 기도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저들의 말은, 마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하는 약한 자들의 생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되 몸으로 보여주는 목회를 하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병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먹을 것을 사 들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방구석에 앉아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뛰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훈련을 하고 보니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기도를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에서 실패한 후 지역을 옮겨 LA로 가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은 상당히 조급했습니다. 비록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은사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하고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오직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지냈습니다. 거의 6개월 기간 동안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면 믿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은 간간히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

다. 그만큼 내게는 기도가 필요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교회도 없었고 교인도 없이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당시 나는 아파트 창고를 기도실로 개조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참으로 값지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능력을 받았으며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광야는 지나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인생수업 중의 최고의 수업인 셈입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광야를 거쳤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LA로 이사가기 전까지도 모든 생활비를 충족시켜 주셨지만 가장 힘들었던 영성훈련 기간엔 한 달에 1500불 정도 적자였습니다. 후원자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기도엔 열심이었고 아내는 일 나가기 전에 이른 아침에 골방기도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데 참으로 놀랍게도 풍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적절할 때에 필요한 금액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사를 가게 하셨으며 핸드

폰 번호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일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곤 오로지 기도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나는 실제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듣는 음성도 더 잘 듣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받은 능력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11~13)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자들

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 열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이 눈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날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만찬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 가셨지만 함께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잠시 성경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6~39)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따로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로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기도만큼은 홀로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음 날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가롯유다가 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동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39절)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하시며 이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 지실 것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예수님은 너무도 간절히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셔야 할 잔이 너무나 고난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땀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강한 영광체험을 하다 보면 어찌다 온 몸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의 기운이 돋는 경우는 있지만 땀이 흘러 내린 경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도중 땀이 피방울처럼 흘러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방울'은 피가 굳어 엉겼을 때 큰 덩어리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가 흘러 내린 것이 아니라 마치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피덩어리처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피가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땀방울이 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그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마음을 정리하셨고 모든 고난의 길을 걸으실 것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결정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심지어 전화가 올 때에 받아야 할 지를 묻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훈련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일일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하나하나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니다. 때로는 찬송가를 반복해서 두 번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누군가를 세워 예언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 결정에 순종할 뿐입니다.

LA에서 영성훈련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려는 무렵에 성령님은 내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영성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곱명을 성령사역자로 세우고 저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성령님께서 언급하신 일곱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령님께서 당신을 성령사역자로 세우셨다고 전했습니다. 일곱사람 모두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불러 세워 성령사역자로 세웠으며 기름을 부어 성별했습니다.

중보기도로 사람을 구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오천 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귀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요 6장)

제자들이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다 거둬들인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러 가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귀한 사역 후에 오는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험에서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마 14:22~25)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파도에 휩싸여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험적인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각에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는 교회에서 매우 유용하게 운용되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래 중보기도자는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사도요한은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간구를 통해 형제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일 5:16)

성령을 거슬려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만 제외하고는 죄에 빠져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요한을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요한만 더 사랑하고 베드로는 덜 사랑하겠습니까? 귀한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

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기도로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 가장 먼저 따랐던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요 1:40)

안드레의 이름은 언급이 되었지만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갖고서는 언급되지 않은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

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20:31~32)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다름 아닌 사도요한이었습니다. 사도요한은 제자들 중 유일하게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기가 차마 부끄러웠던지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안드레가 수석제자 대열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있을까요? 예수님을 첫 번째 따랐던 제자였는데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세배대의 아내가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그 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마 20:20~21)

성경에서 엄마의 치맛바람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자신의 두 아들(야고보와 요한)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두 아들을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앉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아들은 제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화난 제자들을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27)

예수님은 세상의 정욕이 없으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에 욕심이 있으실리 없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성인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요 6:14)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요 6:15)

그 즉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마 20:28) 이 땅에 오신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성훈련을 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만, 나에게는 오래 전부터 야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뻐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기도는 대화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에는 치료의 광선이 나가고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때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놀라운 성령사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원하셨지 교회나 사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원하시고 나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의 찬양에 감격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나의 모든 생각과 목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바라보시듯이 나의 목회도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그렇게 작은 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헛된 목회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체험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에도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했던 여인과의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구애 받지 않고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 하셨던 이유는 기도란 그렇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눅 9:28~29)

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

라”(눅 9:27)

아마도 변형의 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갖고도 예측은 불확신합니다. 그래서 변형의 산에 관해 기록된 다른 복음서의 같은 내용을 한번 볼 까 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라”(막 9:1)

마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는 '권능
으로 임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능은 하
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
다.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생겨났다는 것은 우
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성령님
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
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 역시 같은 단어인 <두나미스>로 써져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권능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단순한 성령세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말한다면 권능을 받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증인이 되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는커녕 동네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말씀은 바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기름부음심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에 취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저들의 입에선 방언이 나왔으며 권능의 말씀을 전해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회개의 영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 제자들을 기도에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

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변형의 산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혹 변형의 산 자체가 누구든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영광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체험하는 동안 예수님의 옷은 빨래로 아무리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져 있었고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막 9: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광체험을 왜 지겨운 씨름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황홀한 기도를 왜 한 순간이든 마다 하셨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 할 때에 비몽사몽간에”(행 22:17)

이 구절은 바울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엔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몽사몽>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입

니다. 이 단어를 비몽사몽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거나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비몽사몽'의 단어를 'trance'로 번역해 놓았는데 '입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엑스타시스 ecstasy>라는 단어는 현재 영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듯이 '무아의 경지, 황홀경, 환희의 절정'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했다는 말은 기도의 무아 경지에 올랐다는 말이며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황홀경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에서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신약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행 10:2~11)

신약성경에 <엑스타시스>가 '황홀함'이란 뜻으로 단 두 군데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쌍

벽을 이뤘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렸으며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라 불렸습니다. 그런 두 사람 모두 '비몽사몽한'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중얼거린다고해도 황홀해지지 않으며 아무리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황홀해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비몽사몽한'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육의 기도나 혼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해서 두 사람의 능력을 대표할만한 구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2)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행 5:15~16)

두 사람 모두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병이 치유되었으며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저들에겐 예수님 못지 않는 큰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들은 그런 큰 권능을 받았을까요? 바로 영의 기도때문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들의 영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능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당신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처럼 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체험을 하셨듯이 당신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영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 체험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으며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듣는 방법

초판발행 2014. 12. 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9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학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버전 있음)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